

Ethylene, 드디어 상승세 꺾였다!

PE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이 주원인 ... 약보합세로 700달러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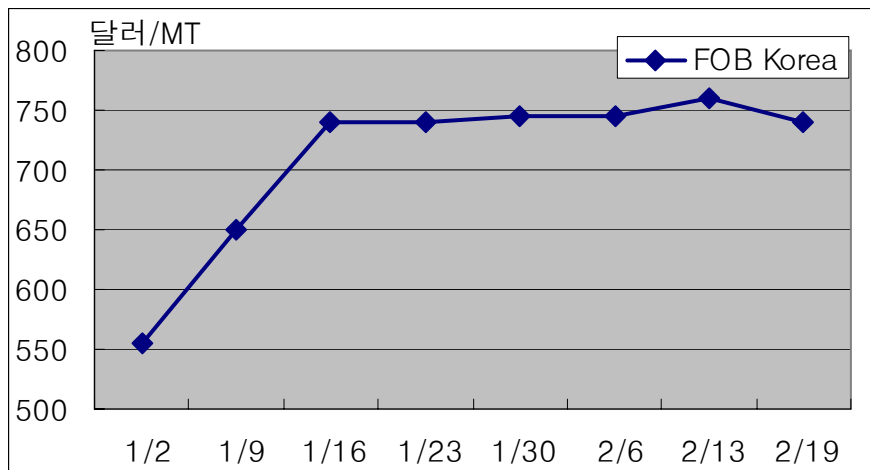
에틸렌(Ethylene) 가격이 FOB Korea 톤당 740달러를 기록하면서 2004년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에틸렌은 한국에서 2월15일부터 20일까지 실제 Deal된 물량은 없었으나 중국 거래가격인 CFR FE Asia 가격이 780-810달러로 Cargo 비용을 제외한 740달러로 2월13일 760달러보다 20달러 하락했다.

에틸렌 가격하락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PE(Polyethylene)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이 에틸렌 가격하락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가격이 폭등했던 에틸렌은 중국의 PE 수요증가에 따른 Down Stream 가격과 수요강세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월 폭등했던 나프타(Naphtha)가 안정세로 평가되면서 에틸렌의 추가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Ethylene 가격추이



그러나 에틸렌 시장 관계자는 "CFR FE Asia 가격이 790-810달러에 달하고 중국 거래가격이 800달러를 넘는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에틸렌 가격이 2월 FOB Korea 톤당 700달러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E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에틸렌을 소비하는 PVC, SM, VAM, ABS 등 PE를 제외한 Down Stream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해 PE 수요감소가 에틸렌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틸렌은 3월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극동아시아의 크래커들이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2월10일 화재가 발생해 가격상승의 원인이 됐던 타이완의 CPC(Chinese Petroleum) No.3 NCC(23만 톤)는 가동이 재개됐으며, 1월 중국의 구정기간에 트러블을 일으켰던 No.4 NCC(38만5000톤)는 재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2월13일경에는 인디아 Hazira 소재 Reliance Industries의 에틸렌 80만톤 크래커가 가동중단에 들어갔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2/23>